

또 다른 용산참사에 맞서야 한다!

먹고 살 걱정!

국민 1인당 부채가 1600만원에 이른다 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까지 모두 포함 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개인부채가 800조 원을 넘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는 곧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해서 가계유 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계는 유지되 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내 다 팔 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거나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빚쟁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수 가격이 많이도 올랐습니다. 설탕, 과자, 빵과 같은 일용품에서 휘발유까 지 안 오르는 것이 없어 물가인상률은 선 두권을 다투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뿐입니다. 실질임금은 오 르지 않는데 오히려 임금체불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350만명에 달하 는데 올해 졸업생 열명 중에 한명만이 취 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데도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불지르기 정부대책

정부가 내놓는 위기대책이라는 것이 더 기막힙니다. 공기업 노동자 10% 삭감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개월 또는 6 개월 수명의 인턴,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내놓고, 대기업의 초봉을 최대 28% 삭감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7월이 면 계약만료되는 100만명에 이르는 비정 규직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 으로 늘리는 비정규법안을 들이대고, 최저임금을 최악임금으로 개악하는 것입니 다. 게다가 없는 자는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도록 영리 대형병원 설립을 허용하 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치 르기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불복종 선언이 몇 명이 되든, 체험학습과 오답선언을 하 는 학부모와 학생이 얼마나 되든, 징계의 갈날을 앞세워 학교 서열화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화택'은 불길에 휩싸인 집이라 는 말로 고통스러운 세상을 비유하는 것 입니다. 서민을 더욱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모는 것이 정부의 대책일 뿐입니다.

예고되고 있는 또 다른 용산참사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전세계 적인 경제공황으로 이어졌고, 한국도 세 계적인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 습니다. 경제위기로 600조나 되는 일반대 출과 부동산대출이 부실해지면서 은행들 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명박 정 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에 39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과 지급보증을 해주었 고, 양도세 완화, 용적률 완화 등 총 9차 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 기 위한 무차별적인 재개발정책이 불려온 국가폭력으로, 용산에서 6명의 목숨을 앗 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용산에서 처 참하게 죽음을 맞은 5분은 여전히 장례도 치르지 못한채 구전을 떠돌고 있습니다.

건설자본만을 살찌우는 살인개발이 계 속되는 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의 문제만이 아닙 니다.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비정규직 양산, 의료민영화, 교육서열화 는 서민의 삶을 위협하며 더욱 고통으로

몰아가는 불길 일뿐입니다.

4월에서 5월로, 용산에서 전국으로!

4월 29일은 국가폭력에 의한 용산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용산범대위는 4 월 28일부터 5월 2일을 범국민추모주간 으로 설정하고 범국민적 추모행사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산 참사를 비롯 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반민주적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4월말 5월초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2일 10만 범국민 대회를 종교, 시민 사회단체, 정당과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 갈 것입니다.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의 문 제를 드러내는 랜드마크로 반민중적 이명 박 정부에 맞선 연대를 엮어나가는 중심 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구전을 떠도는 공 권력에 의한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안식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의 안식을 구하기 위해 다시한번 촛불을 그리고 투 쟁의 깃발아래 어깨걸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용산살인진압을 고발한다!**

용산 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참여방법 ▶ 1인당 1만 원씩 모금 및 연명

- 인터넷 신청 및 모금 (<http://mbout.jinbo.net>)
- 참여계좌 : 신한 140-008-234498
(예금주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 문의 : 02.795.1444, mbout@jinbo.net
- 모금액은 전액 신문광고 및 장례비, 부상자 병원비, 유가족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책임자처벌을위한 고발운동에 참여합니다.
4.18 제2차 범국민 고발인대외에 함께합니다.

옥중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은 아직도 추운 겨울인데 어느 덧 봄이 왔어. 당신 면회가는 길에 차창 밖을 보면 온통 봄 풍경인 것이 내 가슴을 더 시리게 해. 예년 같으면 꽃구경 가자고 내가 며칠을 즐겼을텐데. 3년전인가 그 사람 많은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에 갔다가 내 핸드폰 건전지가 다 닳아서 이십분을 헤매고 나서 찾은 일 기억나지? 공중전화가 어찌나 눈에 안 보이던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고집세고 무뚝뚝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당신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가장 속상해. 가족들과 삼겹살 외식을 할 때면 다른 가족들 구워 주느라 정작 자기는 몇점 먹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욕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

지난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어. 제주 4·3항쟁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4·3 61주년 문화예술연합공연에 가서 발언을 했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는 것도 익숙해졌어. 그런데 늘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한가지씩을 빼놓고 내려와서 후회를 해. 당신 따라 이제 나도 투사가 되어가는 가봐. 제주공항에 가니까 재작년에 당신이 비행기 한번도 못 타 봤다며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한뼘이라도 아껴서 곁 혼준비 해야한다며 다음에 가자고 미뤘던 일이 생각났어. 그래서 제주도의 시원한 바람, 만발한 유채꽃, 맛있는 제주음식들 모두 제주에 두고 왔어. 사진도 안 찍고 마음에도 담지 않았어. 다음에 당신하고 같이 가서 다 새로 느끼고 맛보려고 말이야. 어서 나와서 당신 다리도 다 나오면 꼭 같이 가서 넓은 바다 보고 오자. 언제쯤이 될까? '있을때 잘해'라는 말이 내 마음에 이리도 와 닿을 줄 몰랐어. 6년을 연애하고 8개월을 같이 살았지만 다 한순간도 당신이 내 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 언제나 조용히 날

지켜봐 주고 내 수다를 웃으며 들어주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어. 이렇게 준비없이 떨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해준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더라구. 그 흔한 생일카드 한번 써준 기억이 없고 음식 못한다는 핑계로 맛있는 요리 한번 해 준 적 없는 것이 너무 후회가 돼. 당신 면회, 회의, 집회, 연대 활동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지만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 약속하고 있어. 당신 나오면 내가 정말 잘할게. 맛있게 요리하는 법 배워서 당신 거기서 나오는 날 첫 끼니는 꼭 내 손으로 해주고 말거야.

우리 용산 4지구 식구들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매일 용산 참사현장을 지키고 철거하려는 포크레인을 막아서면서도 당신 걱정을 많이 해. 당신과 그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이겨내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전철원 식구들 모두 변함없이 건재하고 범대위 활동가들도 모두 이번일의 해결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당신과 우리 동지들 모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다 잘 될거야. 그날까지 용산 4가 철대위 위원장의 아내로, 철거민의 한명으로 지지 않고 싸울거야. 어머니와 아주버님도 힘드시지만 잘 견디고 계셔. 또 다른 유족들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어. 오늘 밤에 당신이 꿈에 나오면 좋겠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게.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2009. 4. 9. 새벽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 한켠에서

* 고 이상림 열사의 며느리이자 구속된 이충연 용산4지구 철대위위원장의 부인 정영신씨가 이충연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용산 철거 재개, 돈에 눈먼 개발조합과 가진 자들에 맞서자!

지난 3월 11일부터 재개된 용산에서의 강제철거가 쉽 없이 진행되고 있다. 살인적인 강제철거로 용산참사를 부른 재개발 조합은 아직까지 어떠한 반성도 없다. 오히려 이도 모자라 유족과 철거민들을 상대로 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공사지연으로 손해가 생겼으니 유족과 철거민들이 배상하라는 것이다. 돈에 눈먼 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참사 문제 해결 없이 재개된 개발사업, 이를 막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비극이 벌어질 것이다.

돈에 눈먼 개발조합과 가진 자들에 함께 맞서자!



살인기계... 삶의 공간을, 아니 삶 자체를 부수는 재개발의 살인기계가 다시 용산참사 현장에서 죽음을 부르며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람의 있다

살이 보이는 창 간행



“우리를 다스리는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있었다면 애당초 개발로 인해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집을 잃고 일터를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쫓겨나고 밀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돈을 위한 집이 아니라 삶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런 꿈같은 얘기라 쳐도, 망루에 오른 사람들을 향해 진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설득을 했을 것이다. 그럴 농처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참회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인간들”은 그날 국가 폭력에 죽어간 이들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본문 「조세희 작가에게 듣다」 중에서

참사 두달 보름, 끝나지 않은 용산 철거민 학살의 진실은?
살기 위해 올라간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무자비한 공권력 진압 과정에서 죽어갔다. 정부는 하루도 안돼 유가족들을 따돌리고 강제 부검을 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다. 다섯 유가족들은 지금도 훼손된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진실을 없애기 위해 신 보도지침, 모든 용산 관련 추모제를 불허하고 범국민대책위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묻혀지지 않는다. 이 책 안에 그런 숨겨진 진실이 용산참사 당사자들과 서울, 경기 지역 철거민 열 다섯 명의 증언을 통해 담겨져 있다.

개발에 저항한 ‘남장이’ 들의 삶, 일상, 투쟁을 받아 적다
이 책은 350만 원짜리 무허가 판잣집을 공전이라 여겼고, 12평 전셋집에서 네 식구의 행복을 가꾸었던, 자신의 가계에 타일 한 장 한 장을 붙여가며 꿈을 일궈왔던 우리 가난하고 평범한 이웃들의 작은 소망에 관한 보고서이다. 폭력적인 재개발에 대항하여 이들이 망루에까지 오르게 되는 고단한 투쟁의 기록이며, 그 저항이 무참히 짓밟히는 과정을 담은 우리 시대 잔혹한 개발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주문 방법
- 개인 구입은 서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단체 주문은 범국민대책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 책을 받고 판매 후 입금해주시도 됩니다.
*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추대기금으로 쓰입니다.
* 입금 계좌 및 담당자 / 302-0005-1159-01(농협중앙회 / 김택진)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02-795-1444 / mbout.jinbo.net / mbout@jinbo.net
[출판사] 살이 보이는 창 / 02-848-3097 / samchang.or.kr

용산참사 유가족 돕기 Live Aid

[추모음악회]

"희망"

일정: 2009년 4월 23일(목)-2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주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용산참사추모음악회준비위원회

주관: 문화연대

공연팀: 이상은, 윈디시티, 로로스,블랙홀, 갤럭시 익스프레스, 킹스턴루디스카, 브로콜리너마저 등

공연티켓: 2만원

문의전화: 02-749-0883

함께합시다!

- 매일 저녁 7시, 용산참사현장에서 있는, 추모미사와 촛불추모제에 함께합니다.
- 매주 토요일 용산현장 및 서울도심에서 있는 범국민추모대회에 함께합니다.
- 책임자 처벌을위한 범국민 고발운동과 모금운동에 동참합니다.
- 참사현장에 대한 용역과 경찰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사현장 분향소 조문에 함께합니다.
- 용산참사현장에 있는 레아호프(고 이상림 열사 운영)가, 문화공간과 촛불미디어센터로 개관하였습니다. 레아에도 많은 방문바랍니다